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北韓問題 學術 세미나 發表論文 －

1991. 6. 28

Siegfried Scheibe
(韓·獨 商工會 技術顧問)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지난 수년간 蘇聯과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은 經濟의 改革 開放과 民主化運動으로 특징지어지는 체제변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지금 對內外的으로 많은 어려움에 直面하여 선택과 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유엔 同時加入 宣言, 美·日 接近 등 북한의 對外 政策 變化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北韓의 經濟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北韓社會의 變化可能性과 그 展開方向을 정확히 진단하고 統一政策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1991년 6월 28일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이라는 主題로, 北韓에 장기간 체류하여 北韓體制를 체험하면서 資料를 수집해온 Siegfried Scheibe씨를 모시고 北韓經濟의 實相에 관하여 學術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學術會議 發表論文과 그에 대한 討論을 수록한 것으로 전환기에 서 있는 北韓經濟를 바르게 이해하여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の 造成에 도움이 됨은 물론 統一政策 立案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活用되기를 기대한다.

1991. 7.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1. 開會辭	李秉龍...	3
2. 主題發表		5
·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實相과 展望		
.....	Siegfried Scheibe...	6
3. 討 論		31
〈附錄〉 세미나 日程.....		46

빈 면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民族統一研究院과 文化放送이 주최하는 北韓問題 學術會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學術會議에 發表者와 討論者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斯界의 전문가 여러분께 感謝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學術會議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 사이에 우리는 社會主義 國家들의 大變革을 목도했습니다. 中國, 蘇聯, 東歐 등 거의 모든 社會主義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資本主義的 시장메카니즘의 도입과 부분적 對外開放으로 특징지어지는 體制改革을 단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改革의 熱風이 불게 된 데는 다른 많은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안고 있던 經濟體制의 非效率性에 기인한 經濟的 危機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최근 북한은 폐쇄화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누적된 모순과 蘇聯, 東歐圈의 개방화 추세, 그리고 韓半島 周邊情勢의 급격한 변화 등에 직면하여 選擇과 調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의 UN가입선언, 對美 日接近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외 정책에 대한 北韓의 태도변화는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깊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社會 變化의 정도와 향후 전개방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北韓經濟에 대한 深度있는 분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극히 皮相的인 水準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저희 研究院과 文化放送이 社會主義 經濟發展論에 정통할 뿐 아니라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北韓體制를 체험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온 Scheibe씨를 모시고 북한의 經濟 實相에

관해 學術會議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學術會議가 유익하고 성공적인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斯界의 專門家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본 세미나 개최를 적극 후원해
준 韓·獨商工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최의 인사에 갈음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6. 28.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主 題 發 表

- 司 會：李達熙(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發表者：Siegfried Scheibe(韓·獨 商工會 技術顧問)
- 題 目：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實相과 展望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實相과 展望

Siegfried Scheibe(韓·獨 商工會 技術顧問)

1. 머리말

“社會主義 陣營”은 해체되고, 이들 사회 체제의 경제, 군사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北韓 경제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현재 유일하게 北韓의 指導者들만이 지금까지의 사회체제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까닭은 이 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는 것은 主體 思想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北韓의 당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東歐圈의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고, 몇 안되는 소수의 당원들만이 이런 변화의 원인과 발전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대내외 經濟政策의 지축이 새로운 질서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北韓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국가적 압력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견뎌내야만 한다.

北韓의 일면적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蘇聯과 中國이 도와주었던 그 시대는 지났다. 이제 北韓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정책을 다시 심사숙고 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北韓은 머지않아 국제적인 삶에 문을 개방하고 차단된 자기만의 世界로부터 나오도록 강요되어질 것이다.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國際 原子力 機構의 安全協定 및 이와 관련하여 北韓이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소형 원자로에 대한 국제적 査察에의 承認을 준비하고 있음.

- UN 동시 가입에 대한 동의.
- 日本과의 상호 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협상.
- 필리핀과의 外交關係 수립.
-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西方 世界와의 집중적인 協力.
- 남한과의 직접적인 경제 교역.
- 남북한간 빈번한 스포츠 교류 등.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 전에는 북한 지도자들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것은 단지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시키는데 성공하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의 강경한 태도는 근본적인 아무런 妥協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외부로부터의 정치적인 영향은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들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고위 당원들은 알고 있다. 다른 체제의 사상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조건 자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론인 主體思想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라는 명제를 가지고 개방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을 기피하고, 개혁의 모든 가능성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獨逸의 統一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북한의 현 상태에 대한 진정한 개혁이 현재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民衆으로부터의 개혁은 어떤가? 이를 위해서는 個人이나 반대 세력의 集團들이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당정책이 옳은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필수 불가결한 변혁에 관한 의견의 표명, 혹은 主體思想만이 유일한 진실인가에 대한 단순한 의문 제기조차도 당이나 비밀 경찰, 경찰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金日成과 金正日 또는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연설이나 글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고위 당원의 특권을 잃게 되거나 지방의 작업장으로 보내질 충분한 이유가 된다.

勞動黨 總秘書의 교체나 악화되는 생활 형편이 큰 企業에서의 소
요나 학생들의 데모로 이어질 확률은 적다. 非暴力的인 개혁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軍部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 經濟 政策

당 지도자들과 주석은 경제정책 목표를 생산의 비약적인 증가, 學問과
技術의 급속한 발전, 생산력의 향상과 군수물자 생산의 확장에 두고 있
다. 黨 지도자들의 자급자족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엇보다
도 김일성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국민경제의 모든 분
야에서 무비판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해석되어진다. 소
련과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은 존재할 수 없었다. 북한 국민경제의 기
반은 약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볼때 1986년 이래로 생산은 停滯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
률은 80년대에 평균 3~4%였는데, 이는 극동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성장
률, 특히 남한의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스스로 세운 장기적
인 경제계획과 연간 경제계획 목표도 단지 극소수의 부문에서만 달성되
었다. 1978년부터 1984년에 걸친 第2次 7個年 經濟計劃 기간에는, 예
를 들어 매년 10%의 GNP·成長率을 목표로 세웠는데 최대한 2~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GNP 성장률이 8%였던 70년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黨과 國家 지도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는 경제의 큰 어려움들
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 ① 최종 생산품에 있어서 비용과 질을 고려치 않은 양적 생산의 증대만
을 추구.
- ② 기간 산업과 서비스 산업 경시.
- ③ 일반적 생활수준을 낮은 사회적 수준으로 한정함.
- ④ 발전소 건설의 상당한 지연으로 인한 에너지 生産의 落後性.
- ⑤ 공업과 농업 분야에 있어서 자체 생산의 原資材 및 原料의 공급

를 하락.

⑥수 년동안 해결되지 않은 열차 운송과 도로 運送의 문제 : 주요 구간의 높은 電氣化率에도 불구하고 교량과 철도의 충분치 못한 적재력으로 인해 대형 화물 열차가 운행될 수 없는 것이 그 한 예이다. 100톤 짜리 화차를 생산함으로써 총 4,000에서 5,000톤의 화물열차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200톤에서 300톤까지의 화물을 실은 열차들이 운행된다. 현존하는 도로 輸送施設들은 구식이고 고장이 잦다. 연료와 부속품의 부족과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의 좋지않은 상태는 도로 운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농산물은 국민경제의 주요 운송물의 하나인데, 이의 운송은 단지 적은 수량의 트럭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트럭을 목탄 가스용으로 전환시킨 것은 디젤 연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⑦거대한 投資 事業을 달성함에 있어서의 상당한 遲延 : 순천의 화학공장은 가동 예정일 보다 부분적으로는 4년이나 지연되었고, 김책제철소는 1년 내지 1년반 지연, 사리원 칼리 공장도 2년이 넘게 지연되었고, 위원, 태천, 영원의 수력발전소 건설은 3년 이상, 평양~개성간의 새 고속도로는 1년 이상이나 건설이 지연되었다.

⑧社會行事를 위한 준비와 그 행사로 인한 잦은 生産의 中斷 : 그 한 예로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축전을 들 수 있다. 수십만명 때로는 120만명에 이르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개회식 및 폐회식 공연, 스포츠 쇼, 퍼레이드, 마스게임을 연습하기 위하여 수개월동안이나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經費는 47.7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적은 규모로는 1990년 10월의 創黨紀念日 45주년 행사와 1988년 9월의 북한 창립 40주년 기념일, 그리고 김일성의 生日을 계기로

매년 열리는 봄 축제들을 들 수 있다.

- ⑨ 좋지 않은 輸出産業 構造 : 총 수출의 80% 이상이 원자재, 원자재류 원료와 반제품이다(51%는 광물성 원자재와 귀금속, 31%는 식료품과 농산물, 18%는 경공업 제품이다).
- ⑩ 農業의 輕視 : 지난 몇 년 동안 농업 經營分野에서는 단지 불과 몇 대 안되는 출력이 약하고 구식인, 자체 생산한 새 트랙터 및 농기계와 운송 기구들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고가의 식물과 종자, 방충제 및 사료도 불충분하다.
- ⑪ 낮아지는 국민의 生活水準 : 국민에게 배급되는 生必需品와 食糧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절감과 절약은 -특히 사회 대행사들과 연관되어- 항상 거론되는 문제들이다.
- ⑫ 총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軍需産業의 우선적인 발전이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는 第2經濟委員會라고 지칭된다. 이 제2 경제위원회는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조직된 경제 기구이다. 이 군수 분야에는 광산업과 탄광업, 화학 공업, 금속공업, 금속 가공업, 경공업, 식료품 산업과 농업의 일부 등 모든 국민 경제 분야가 포함된다. 북한에는 약 850,000명의 軍隊와 350,000명의 保安部 단원이 있고, 그 외에도 그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붉은청년 근위대에 소속된 젊은이들이 있다.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들은 군사훈련 및 軍服務를 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은 평균적으로 4~5년이나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방비는 공식적으로는 총 국가 예산의 12.8% 내지 13.4% 이지만 실지로 22% 이상이다.
- ⑬ 국내 기업들간의 상당히 약한 상품지불 및 계약 관계와 관료주의, 경제를 이끄는 기관들의 형식주의도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3. 主要産業 部門別 現況과 問題點

가. 原資材 産業

북한에 매장된 地下資源은 국민경제 발전의 좋은 토대가 된다. 중요한 자원에는 석탄, 마그네사이트, 광석, 암석과 토양이다. 탐지된 석탄 埋藏量은 220~240억톤으로 추정된다. 육지에 약 60~80억톤, 해안에, 특히 황해의 대륙붕에는 150~170억톤이 매장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석탄을 경갈탄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2,000에서 최대 5,000 킬로칼로리의 연소가를 가진다. 80년대 중반 이래로 북한은 석탄을 가스화 및 코크화하여 더욱 정제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해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마그네사이트, 흑연, 철광, 납, 아연, 은, 금의 다량의 매장은 북한수출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 지금까지 불충분하게 개발되어 아직 채광의 여지가 많은 것은 희귀한 토양, 그 중에서도 니오비움과 티탄산의 매장이다. 사실 적합한 가공 능력은 아직 없다. 언급할 만한 것은 또한 석회석, 반토, 암석 그 중에서도 대량의 화강암과 양질의 대리석, 또한 여러 종류의 모래 등의 산출이다.

북한의 최대의 철광산은 중국과의 국경과 멀지않은 무산시의 근처인 북한의 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광석의 채광은 노천 채굴 방식으로 행해진다. 여기에서 탐지된 매장량은 15억톤에 달하고 철의 함유량은 40%까지 된다고 한다. 철광 매장지로는 신의주, 덕성, 탄천, 원산시의 근처와 금강산의 동부지방이 알려져 있다. 금 생산은 연간 25~40톤 정도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는 수백톤이 생산된 적도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금광산은 중북부 지방과 평양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山林業

지리적 구조에 의하여 이 나라의 80% 정도가 산이며 북한에는 상

당히 넓은 면적의 산림과 숲이 있다. 산림 면적은 89,700평방 킬로미터로서 전 국토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벌채량은 4백만 내지 5백만 입방 미터에 달한다. 목재 산업의 이용면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 金屬 工業

북한의 금속 공업은 청진과 김책을 중심으로 하는 북서부와, 황해와 공선의 제련 공장을 포함한 대동강 하류 지방의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청진의 대단위 제철소와 압연 공장의 개조와 확장은 蘇聯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술수준은 70년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여기에 결여된 것은 기술적 과정에 있어서의 현대적인 조정장치이고 이것이 제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비철금속 공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 이후에 건설된 공장들은 모두 現代化 되어야만 한다. 원산시 근처의 문평 야금 공장의 납 鍊所는 완전히 낡았다.

라. 에너지 産業

북한의 현재 발전 능력은 약 77억 와트에 달한다. 그 중의 44억 6천만 와트는 수력으로, 32억 4천만 와트는 火力으로 충당된다. 1989년과 1990년에 이들 발전소에서는 약 320억 킬로 와트 및 360억 킬로 와트의 전력이 생산되었다. 이는 공업과 농업, 가정에서의 전력소모를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양이다. 전력 생산의 부족량은 매년 적어도 120~150억 킬로 와트로 추정되고 있다. 17억 6천만 와트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蘇聯의 도움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1990년 여름에 실포시 근처에서 구체적으로 工場을 지을 장소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다. 소련의 전문가들은 1993/1994년이나 되어야 착공되리라 전망한다. 이는 물론 국제원자력 기구의 안전협정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상태에서 북한은 가입할 의사를 보이

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마. 機械工學/ 電子工學

전자공학을 포함한 機械製造 분야는 국가 총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공장들의 기술 설비는 낙후되어 있고 생산된 제품들은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 군수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 군수장비 생산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탱크, 군 차량과 수송 차량, 휴대용 무기, 대포, 로켓트와 헬리콥터의 제조 및 수리 공장들이다.

바. 化學 工業

화학 공업의 중요 생산품으로는 합성섬유, 고압 폴리에틸렌, 농약, 요소, 황산, 염료, 탄성고무, 자동차 타이어와 의약 제품들을 들 수 있다. 북한에는 총 용량이 3백만 톤인 2개의 정유 공장이 있다. 석유는 소련과 중국에 의해 건설된 공장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련과 중국에서 수입된다.

사. 纖維 工業

전통적으로 섬유 공업은 많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파트너 기업의 도움을 받아 공장 전부나 혹은 일부의 설비를 개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장점은 低賃金인데, 월 임금이 90 내지 100원(120~130 마르크)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많이 발전되었고 약 90개의 공장들이 소련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아. 建設業

일련의 공업단지 조성, 남포 근처의 서해안 저수지 건설, 평양의 지하철 건설 등 지난 10년 내지 15년동안 건설업을 중요한 산업분야로 발전시켰다. 개선문과 평양의 主體思想塔 등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건물의 완성, 대형 호텔과 운동 경기장들의 건설, 주택 건설, 방공호, 광산 건설 등은 建設業이 상당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農 業

북한은 240만 헥타르의 農業 용지를 가지고 있고, 이는 전 국토의 20%에 해당된다. 주요 농작물로는 쌀, 옥수수, 채소, 과일 등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機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980만 명의 勞動人口 중 35%인 350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작지는 國家 財産이며 農場에 의해 경영된다. 북한은 100만 마리의 소와 300만 마리의 돼지를 소유하고 있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우유와 육류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차. 投資政策

북한의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는 투자정책 분야이다. 수년동안 위신을 세우기 위한 몇개의 프로젝트와 非生産的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국민경제의 不均衡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몇 안되는 현대식 공업 설비로는 상원의 시멘트 공장(독일), 평양의 알루미늄 주조 공장(일본), 8개의 기성복 공장(일본, 독일), 평양의 슬레이트 공장(덴마크, 스웨덴) 및 문평의 연재와 폐광재의 선광을 위한 설비(일본)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經濟는 당 지도자들의 정책에 의해 추진된 몇몇 산업분야의 예는 전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發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도시와 지방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부품 공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점, 운송 수단이 좋지 않은 점, 점점 늘어나는 전력 수요량과 노동력의 질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큰 북한의 투자 계획은 순천의 화학공장이다. 관계 부처의 한 고위 간부의 말에 의하면 투자액이 100억 내지 120억 달

러에 달한다고 한다. 공장이 가동되면 이 공장에서는 백만톤의 카바이드, 75만톤의 메탄올, 30만톤의 사료 효모와 10만톤의 비닐론섬유가 생산될 것이라 한다. 원래 이 공장은 북한 창립 40주년 기념일인 1988년 9월 9일에 完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아마도 몇 년 이내에는 완공되지 못할 형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투자계획으로는 발전소 건설을 들 수 있다. 현재 1억 5천 와트에서 8억 2천 와트에 달하는 용량의 7개의 수력 발전소와 2억 와트의 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작년의 중요한 투자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24개의 水門을 가진 총 길이 8킬로 미터의 서해댐 건설: 여기에 100킬로 미터 이상의 길이에 1~1.5 미터의 높이로 대동강 물이 저장된다. 경비는 총 40~60억불로 추정된다.
- 청진에 위치한 蘇聯과 공동으로 개발한 170만톤 용량의 압연강과 280만톤의 조강을 생산할 수 있는 金策제철소와 압연 공장의 부분적 가동.
- 천리마제철소의 확장, 특히 1만톤 짜리 압착기의 설치.
- 태안과 낙원의 중장비 제조 공장: 함흥의 비닐론 종합 단지, 희천의 공작기계 공장, 청진과 원산의 조선소, 청진의 광산장비 제조공장, 승리 화물차 공장의 생산량의 증대.
- 주요 鐵道 구간의 85%의 전기화.
- 안주, 순천, 풍천의 새 炭鑛의 개척과 무산의 탄갱의 확대.
- 외국과의 합작으로 새로운 工場 建設: 상원에 獨逸과 合作으로 연간 3백만톤 생산량의 시멘트 공장 건설, 루마니아와 合作으로 연간 생산량 100톤의 비타민C 공장 건설, 중국과 함흥의 불펜공장 건설, 비료 제조, 플라스틱 원료 제조, 설비와 5만개의 직조기를 가진 방적공장을 포함한 PAN섬유 제조공장이 있는 안주의 화학공업단지 및 평양의 자동화 기계공장은 舊 동독과, 수도에 있

는 축전지 공장은 蘇聯과 합작으로 건설되었다.

북한은 그 외의 투자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년 생산량 백만톤의 사리원 칼리 비료 공장.
- 김책 제철소와 압연 공장의 지속적인 확장.
- 년 생산량 3백만톤의 압연강과 강철 와이어 공장 건설.
- 강원의 제철소 생산량 증대.
- 정주의 30만톤 생산량 규모의 인산염 비료 공장 건설.
- 승리 화물차 생산 공장의 디젤엔진 생산능력을 연간 만개로 확장.
- 희천의 공작기계 공장의 확장.
- 년 생산 1,500톤 규모의 폴리 크리스탈 규소와 그에 필요한 양의 Trichlorsilan 생산을 위한 공장 확장.
- 평양과 희천의 전자부품 생산을 위한 2개의 공장 건설.
- 섬유기계 제조의 생산량 확대.

이러한 투자계획은 당 지도자와 주석의 정책이 비현실적임을 보여 준다. 북한 경제의 현 상태는 이런 포괄적인 대규모의 투자정책을 위해 필요한 원료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의 형편없이 낮은 지불 능력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4. 對外經濟

북한의 대외경제는 국민경제의 재생산 과정의 가장 취약한 분야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아직 한번도 對外經濟의 도움으로 눈에 떨 만큼 국민총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

대외경제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수출입, 외환 거래와 국가간의 서비스업이 거기에 포함된다. 수출과 수입은 엄격한 許可節次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는 점점 더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 무거운 짐이 되어간다. 특히 태환성 貨幣를 가진 나라에로의 수출을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북한의 債務는 약 45억 내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중 5억 3천만불은 일본에, 8억 달러는 이란에, 9억 달러는 중국에, 1억 7천 달러는 영국에, 2억 2천 5백만 달러는 볼란서에, 1억 4천 5백만 달러는 스위스에, 1억 달러는 오스트리아에, 1억 5천만 달러는 스웨덴에 대한 채무이다.

蘇聯에 대한 未支拂의 신용 대부 지불금은 26억 루블인데 이는 1990년 당시 환율로 거의 32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 2월에 對外 經濟部 경제 사절단이 經濟 交流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獨逸을 방문했다. 사절단장은 3억 달러에 달하는 독일에 대한 빚을 갚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 후 3월에 온 경제 사절단은 債務 履行에 관해 협상을 벌였고, 각 회사들과의 구체적인 타협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는 두고봐야 하겠다.

1984년 9월 “合作投資 기업 설립에 관한 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로 인해 대외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가능케 되었다. 북한에는 약 100개의 합작 투자 기업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재수출 및 제3세계로의 수출을 위한 일본 기업과의 합작 투자 기업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기업들은 북한의 기업들에게 기계나 장비, 혹은 부분적으로는 특허도 제공했다.

북한은 1989년 對外貿易 거래량이 48억 달러(수출 23억 달러, 수입 25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제까지 거래량 중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남한의 연 대외 무역 거래량의 3.6% 혹은 1년중 13일 동안의 대외 무역 거래량 밖에 되지 않는다. 1989년 대외무역은 소련 50%, 중국 15%, 일본 11%, 동서독 합하여 8% 이다.

북한의 對蘇 輸出은 경공업 제품과 기계, 신터 마그네사이트, 시멘트, 철강과 철강 제품 및 비철금속 등으로 제한된다. 소련은 북한에게 기계와 플랜트, 석유, 석유제품 및 목재와 목재 제품등을 주로 수출한다. 상호간 수출입의 대부분은 軍需工業이 차지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소련과 동구권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중국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유일한 주요국이다. 그러나 북한을 대외 경제에서의 붕괴로부터 조금이라도 헤어나게 해주기에는 중국의 경제기반 또한 너무 약하다. 중국은 매년 200~250만 톤의 해탄, 100~150만 톤의 석유와 농축 망간, 광, 석회석, 소금, 다른 원자재 등을 공급한다. 그에 대한 댓가로 북한은 100~150만 톤의 경갈탄, 50~100만 톤의 시멘트, 비철금속, 철광석, 철판, 비료 등을 공급한다.

日本과의 교역은 단지 日本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조총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중 80개의 중소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특히 컴퓨터 공학 제품, 공산품 소비재, 계측기, 복사기, 의료 기구 등을 수입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압연강, 섬유, 철광석, 철 및 비철금속, 해산물, 식료품 등을 공급한다. 1988년 일본과의 대외무역 거래량은 4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北韓과 이란과의 교역 관계는 극히 軍需技術과 武器 등이 주종을 이룬다. 그에 대한 댓가로 이란은 1백만 톤의 석유를 공급하는데 북한은 이 석유의 대부분을 재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나아가서 이란으로부터 아연 함유율이 60%인 농축 아연을 받아 가공해 주고 그 댓가로 아연을 공급받는다.

서독은 1989년에 1억 3천 8백 3십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5천 2백 5십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제품을 수입했다 (한국과의 수출입 양은 같은 기간에 41억 7천 2백만 마르크 및 45억 2천 8백 7십만 마르크였다). 서독은 특히 기계 제품을 수출하고 원자

재, 섬유, 귀금속을 수입했다.

舊 동독과의 대외 무역 거래량은 2억만 마르크로 수출입 같은 양이었다. 동독의 수입품은 70%가 원자재였고, 주요 수출품은 화학 제품, 기계 제품 이었다.

5. 生活 水準

국민의 생활 형편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나빠져 왔다. 북한에서는 국민에게 配給制로 생필품 및 식료품, 기성복, 소비재 공산품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한다. 분배는 작업장과 주거지의 기관을 통해 행해진다. 1988년에는 그때까지 매달 식량배급양이 28번이었던 것이 25번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고위 당원들에게는 예외였다. 정부는 배급의 분배마저도 점점 더 확실히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89년 이래로 나이와 직업에 따라 400~900 그램이던 일일 쌀 배급량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는 콩, 옥수수, 밀가루 등이 配給되었는데, 우유, 설탕, 기름 등 다른 材料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요리하는데 주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일반 시민은 배급 이외에는 市場에서 비싼 가격으로라도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일정정도의 개인터발 외에는 사유의 논이나 밭, 사육 가축 등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전형적인 行商이나 市場을 찾아볼 수 없다. 평양에는 가끔 농업 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채소를 파는 5~6개의 상점이 있는 조그마한 시장이 있을 뿐이다. 육류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국정 공휴일, 5월 1일 등 정해진 공휴일에만 家族當 소량의 고기를 배급받는데 그것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선택할 수 없고 주는대로 받아야 한다. 년 평균 육류 소비량은 일인당 5~6 킬로그램 정도로 추정된다.

1988년 이후 동해안 연안 어업의 漁獲量의 減少로 인해 생선공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획량의 30% 감소로 인해 일인당 지 금까지의 60~70 킬로그램이었던 해산물의 공급량이 년 35~45 킬로 그램으로 감소되었다. 농산물 수확이 나빠짐에 따라 채소 공급량도 감소되었다.

낮은 평균 임금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現金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여기에선 貯蓄은 공업국가에서 만큼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長期預金이라는 것은 없다. 한 가족에선 대부분 부부 두 사람이 다 일하며, 함께 사는 그 부부의 부모의 연금도 그 가정의 수입이 되는 데, 한 가정의 총 수입은 220~280원으로 보통 모두 지출하지는 않는다. 生必品の 價格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쌀 1킬로그 램은 겨우 0.07원이고 집세는 보통 매달 난방비를 포함하여 2~4원 정도이다. 交通費도 매우 싸다. 그외에도 1974년 이래로 모든 직접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 언급할만한 것으로는 북한의 주민들은 新聞조차 살 수 없다는 것이다. 新聞은 선택된 사람이나 기관에만 배달된다. 잡지나 신문은 단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에 그치고 있으며 오락성은 전혀 없다. 외국의 大衆媒體는 처벌의 위협때문에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專門書籍 조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호텔에서조차도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外國新聞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외부세계로부터의 遮斷은 나아가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정도에까지 이른다. 허가 없이는 북한 사람은 외국인의 질문을 듣는 것 조차도 꺼려한다. 외국인이 거리에서 길을 묻는 것만으로도 북한 사람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무역 상담 담당자들은 外國語를 잘해도 직접 외국인과 이야기를 거부한다. 對話는 통역자로부터 通譯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역인은 외국인과의 대담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가족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얘기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특히 내수 공급의 상황은 북한의 變化를 재촉한다. 이 변

화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오랜동안의 외부 세계부터의 단절과 진실의 왜곡은 내부로부터의 정치적인 전환을 가능케 하는데 중요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6. 展 望

북한의 計劃經濟가 市場經濟로 전환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만 하다.

- 북한의 産業은 자체의 私有經濟 傳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1910년 부터 1945년까지 경제는 日本의 기업가들이 이끌어 나갔고 1946년 이후에는 30년대의 蘇聯의 모델인 計劃經濟體制를 도입했다.
- 기업의 고위 간부들도 전혀 외부세계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경제의 경쟁력은 지금까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다.
- 기업들은 經費와 結果를 비교하여 계산하는데 익숙치 않다. 비용 계산이나 모든 권리, 의무, 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등은 기업들간의 관계에서 상식적이지 않다. 효율성, 수익성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었다.
- 임금의 작업능률에 따른 계산, 보너스의 지급, 보험, 세금 계산 등은 기업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 재정적인 계획서를 포함한 정확한 투자계획, 기계의 사용기간의 문제, 기계의 폐기 처분에 관한 문제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 신용장이나 銀行을 통한 거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 공업, 농업, 기간산업에 있어서 改造와 現代化를 위한 투자의 필요나 노동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費用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소비자의 부족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북한 사람들은 自主性이 무엇인지 배워 익혀야 한다. 指示와 命令

에 따른 행위에서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로의 사고의 변화는 단 시일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전술된 의견에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끈기와 관용이 필요한 것이다.

附 錄

1. 한국과 북한의 경제 데이터 비교(1989/ 90)

(1) 주 요 지 표

	단 위	북 한	한 국
인 구	백만명	21.6	42.8
취 업 인 구	백만명	9.6	18.5
국 민 총 생 산	십억불	21.1	237.9
GNP / 1 인 당	미 불	987.0	5569.0
국 방 비 지 출	십억불	4.5	9.2
해 외 무역 총액	십억불	4.80	134.8
수 출	십억불	1.95	65.0
수 입	십억불	2.85	69.8

(2) 생 산 분 야

	단 위	북 한	한 국
철 강	백만톤	4.4	21.9
석 유 산 물	백만톤	2.2	42.3
직 물	백만 평방미터	560	3730
시 멘 트	백만톤	8.5	33.9
자 동 차	천 대	-	958
곡 물	백만톤	6.0	7.3
석 탄	백만톤	50.0	15.8
철 광 석	백만톤	12.9	0.7
석 회 석	백만톤	-	49.9
비 철 금 속	천톤	290	-

(3) 생산 능력

	단 위	북 한	한 국
전 력	백만와트	7.7	20.5
강 철	백만톤	4.5	23.5
조 선	백만톤	0.3	3.0
자 동 차	천 대	-	1,500
석 유 가 공	백만톤	3.0	47.6

2. 북한의 해외무역(1980~89)

(1) 수출(단위 : 백만불)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공 업 국	416.10	187.80	280.20	253.90	275.80	226.10	230.30	318.00		
개발도상국	330.80	202.90	106.80	199.20	205.60	189.00	128.80	146.47		
구 공산국	890.50	690.50	906.50	798.10	847.30	886.20	1092.60	1070.80	1254.35	1211.31
총 액	1637.40	1081.20	1293.50	1251.20	1328.70	1301.30	1451.70	1535.27		

(2) 수입(단위 : 백만불)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공 업 국	543.70	482.60	497.40	502.70	380.20	368.50	325.60	475.56		
개발도상국	183.90	142.60	130.80	441.80	436.40	414.50	147.40	180.91		
구 공산국	1016.70	848.80	882.30	784.50	823.40	1210.80	1532.70	1768.47	1989.6	1805
총 액	1744.30	1474.00	1510.50	1729.00	1640.00	1993.80	2005.70	2424.94		

(3) 대외무역 거래액(단위 : 백만불)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공 업 국	959.80	670.40	777.60	756.60	656.00	594.60	555.90	793.56		
개발도상국	514.70	345.50	237.60	641.00	642.00	603.50	276.20	327.38		
구 공산국	1907.20	1539.30	1788.80	1582.60	1670.70	2097.00	2625.30	2839.27	3385.57	3016.35
총 액	3381.70	2555.20	2804.00	2980.20	2968.70	3295.10	3457.40	3960.21		

(4) 대차대조표(단위 : 백만불)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공 업 국	-127.60	-294.80	-217.20	-248.80	-104.40	-142.40	-95.30	-157.56		
개발도상국	146.90	60.30	-24.00	-242.60	-230.60	-230.80	-225.50	-18.60		
구 공산국	-126.20	-158.20	24.20	13.60	23.90	-324.60	-440.10	-697.67	-635.31	496.67
총 액	-106.90	-392.80	-217.00	-477.80	-311.30	-692.50	-554.00	-889.67		

	1980~87	1980~1989
공 업 국	-1388.06	
개발도상국	- 568.74	
구 공산국		-1823.71
총 액		

3. 북한의 생산분야(1970~1990)

	단 위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1990
전력	십억키로와트	16.5	26.0	25.0	34.0	35.0	32.0	36.0
석탄	백 만 톤	27.5	44.0	47.0	54.4	50.0	50.0	50.0
철광석	백 만 톤			12.0	13.0	13.0	13.0	12.9
마그네사이트	백 만 톤	1.6	1.5	1.1	1.2	1.1	1.1	1.1
철강	백 만 톤	2.2	2.9	3.4	3.8	4.2	4.3	4.4
압연강	백 만 톤	1.3		2.9	3.1	3.4	3.6	3.8
주물과대장물	백 만 톤	2.4	2.8	3.3	3.6	3.8	3.9	3.9
비철금속	천 톤	160	233	233	280	280	300	290
납	천 톤	55	80	84	85	85	80	81
아연	천 톤	90	140	130	165	170	165	165
동	천 톤	13	13	17	30	29	27	25
알루미늄	천 톤				18.5	21.0	20.0	20.0
기계	천 대			27	28	28	28	28
상용차	천 대	8		11	11	10	10	9.8
트랙터	천 대	3	12	27	26	24	22	21
시멘트	백 만 톤	4.0	7.0	7.0	7.4	8.2	7.8	8.5
석유산물	백 만 톤			2.0	2.0	2.5	2.4	2.2
화학섬유	천 톤			75	80	77	74	79
화학수지	천 톤				117	92	92	92
비료	백 만 톤	1.5		3.5	4.1	3.9	3.8	3.9
직물	백만평방미터	418		480	530	540	550	560
신발	백만켈레			66	71	72	72	70
제지	천 톤	75		170	179	182	182	183
해산물	백 만 톤				2.0	2.1	2.1	2.1
어획	백 만 톤					1.2	1.4	1.3
곡물	백 만 톤				7.4	6.8	7.0	5.8
그중 쌀	백 만 톤			5.0	4.2	4.1	4.2	2.9
옥수수	백 만 톤		1.7	2.2	2.5	2.4	2.5	2.6
야채	백 만 톤		1.9	2.2	2.8	3.2	3.2	3.0
과일	백 만 톤		0.3	0.8	1.1	1.2	1.0	1.3

※ 1963년 이래로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발간되지 않았으므로 상공부의 한국인 직원의 진술과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함.

4. 북한의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목표(1987~1993년)

(1) 계획된 주요 지표 성장률

지 표	성 장 률
총 생산량	90 %
국민총생산 (GNP)	80 %
농업생산	40 %
생산수단	90 %
소비재생산	80 %
지역산업	150 %
대외무역거래	220 %
그중 비철금속	400 %
탕화(湯花)마그네사이트	100 %
노동자와 생활봉급자의 실질임금	60 %
농민의 실질소득	70 %

(2) 계획된 생산량 목표(1993년)

분 야	단 위	계 획 목 표
전 력 량	십억킬로와트	100.0
석탄 생산량	백 만 톤	120.0
철 강	백 만 톤	10.0
비 철 금 속	백 만 톤	1.7
알루미늄, 합금	천 톤	400.0
기계류 제작 생산		+ 150%
시 멘 트	백 만 톤	22.0
인 공 비 료	백 만 톤	7.2
화 학 섬 유	천 톤	225.0
합 성 수 지	천 톤	500.0
나트륨 탄산염		+ 350%
가 성 소 다		+ 110%
황 산		+ 200%
직 물	십억평방미터	1.5
곡 물	백 만 톤	15.0
그 중 쌀	백 만 톤	7.0
육 류	백 만 톤	1.7
닭 알	십 억 개	7.0
과 일	백 만 톤	2.0
해 산 물	백 만 톤	11.0
그 중 생선류	백 만 톤	3.0
철 도 수 송		+ 60%
도 로 수 송		+ 160%

(3) 기타 목표 설정

지 표	계 획 목 표
주택 건설	
건설 투자	제2차 7개년경제계획과 비교 60%증가 그 중 80%가 산업시설
생산성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80%까지 달성
연간생산비 감소	산업 : 3.4% 건축 : 4.6%
연구개발비	연간 국가재정의 3~4%
학자와 전문기술 인력수(1993년)	2백만명
의사 수	인구 만명당 43명
병 상(病床)	30% 증가
습지 매립	30만 헥타르
그 중 처음 3~4년간	15만 헥타르
산림재개발	150만 헥타르
트랙터	농경지 100헥타르 당 10~12대
화학 비료	1헥타르 당 2.5톤 이상
1인1일 평균소비량(1993년)	
육 류	175그램
생 선	400그램
식용유	30그램
과 일	300그램
설 탕	100 그램

빈 면

討 論

- 司 會：李達熙(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討論者：
 - 金永圭(統一院 調查研究官 第4研究官)
 - 宋道均(文化放送 解說委員 兼 北韓部長)
 - 吳寬治(國防研究院 軍備統制研究센터 所長)
 - 黃義珏(高麗大 經濟學科 教授)

討 論

李 達 熙 室長(사회) : 討論을 바로 시작하겠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에 대해 몇가지 말씀 드리겠다. Scheibe씨의 論文에 나오는 각종 숫자들의 出處가 어디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 統計 資料들은 Scheibe씨가 北韓 駐在 東獨 大使館에 社會 政治 參事官으로서 在職하던 當時 北韓 高位政策 決定者들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을 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료들이나, 벽에 붙어있던 자료들을 長期間에 걸쳐 蒐集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다. 토론은 저의 左側에 있는 統一院의 金永圭 調査研究官 부터 시작하겠다.

金 永 圭 研究官(지명토론) : Scheibe씨의 발표를 잘 들었다. 나는 25년간 北韓 經濟를 공부해 왔다. 그 과정에서 國內學者나 專門家들, 外國 學者, 專門家들이 쓴 논문들을 보았다. 이번 Scheibe씨 발표는 문은 외국인으로서 북한 경제를 상당히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는 深層部分까지 이해하고 있었고 제시하신 데이터가 상당히 信賴性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놀랐다.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은 모처럼 접하는 좋은 논문이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데이터 중 몇가지는 우리의 견해와 다른데, 아래 數値에 대한 출처를 제시해 주면 좋겠고, 진실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면 감사하겠다.

첫째, 북한의 石炭 埋藏量을 Scheibe씨는 220~240억톤으로 제시하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입수한 자료나 기타 분석 평가된 자료를 보면 약 120억톤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 발표한 매장량이 현 시점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

한 變數가 된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였고 어느 정도 信憑性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둘째, 북한 輸出이나 對外 去來에서 중요한 役割을 차지하고 있는 年間 金 生産량을 25~40톤으로 발표하였는데 우리 측에서는 9~10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출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란다.

셋째, 북한의 소가 100만 頭, 돼지가 300만 頭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消費生活이 어렵다고 하는 발표에 附合되지 않는다. 이 수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

넷째, 다른 출처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순천 비날론 공장 건설 투자비를 100~120억 불이라고 제시하였다. 그 出處를 밝혀 주기 바란다.

다섯째, 서해담 건설비가 총 40~60억불이라고 했는데 그 출처도 밝혀 주기 바란다.

黃 義 珏 教授(지명토론) : Scheibe씨가 매우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써 북한 경제를 설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heibe씨의 논문에 따르면 第2次 經濟 計劃 期間 中 (1978~1984)에 北韓의 GNP 成長率이 年 平均 2~3%였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技術的인 問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2~3%의 성장률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低經濟成長率의 經濟的 社會的 要因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의 GNP 算出을 어떤 根據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社會主義 國家의 計算 單位가 資本主義의 GNP概念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社會總生産額의 概念을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서 쓰는 GNP概念으로 換算하는 데는 加減해야 할 要素들이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사회총생산액에서 빠져 있는 반면 생산액에서 中間財 部門이 2, 3중으로 계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貨幣를 어

면 基準으로 計算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隔差가 있다. 그러므로 GNP를 달라로 계산할 때 公定換率로 했는지, 貿易換率로 했는지, 購買力 評價基準으로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한국의 1인당 GNP를 우리가 실제 발표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데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셋째, 북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運送과 道路輸送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부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經濟構造의인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부문들을 非生産的 部門으로 看做하기 때문에 招來되는 문제인가. 또는 輸送을 擴張하면 지역간 주민들 사이에 情報가 빨리 流通되어 社會不安 要因을 가져오는 構造的인 問題 때문인가를 經濟學者的인 立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사 회 : 다음은 宋道均 部長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

宋 道 均 部長(지명토론) : 우선 Scheibe씨가 북한 경제를 대단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 특히 言論人 立場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경제문제를 분석하면서 북한의 政治的 變化의 方向까지도 暗示하고 있기 때문에 감명 깊은 논문이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란다.

첫째,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公害分野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1990년말 MBC가 豆滿江을 觀察했을때 茂山鐵鑛에서 나온 공해물질 때문에 淸淨하기로 有名한 두만강이 汚染되어 물고기는 죽고, 두만강 바닥이 철강석 찌꺼기로 갯벌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의 産業 公害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논문에서 북한의 勞動力을 980만명, 이 가운데 농업 종사자들을 350만명, 전체 노동력의 약 35%로 提示하였다. 북한은 공식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農業 機械化率이 100%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농업인구라면 실제 북한의 농업기계화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

수치가 뒤받침되지 않더라도 체험적으로 느낀 북한의 農業機械化率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計劃을 하면 할수록 경제가 악화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北韓 政策 立案者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북한의 경제는 더욱 더 나빠진다고 記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北·日 修交가 이루어져 북한이 일본에게 얻을 것으로 展望되는 50억 불이 북한경제에 들어간다면 이 돈이 북한 경제에 어느정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사 회 : 다음은 吳寬治 所長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

吳寬治 所長(지명토론) : 좋은 논문 발표를 잘 들었다. 나는 軍需 産業 分野에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첫째, 북한의 軍需工業은 누구의 指示를 받는가? 인민무력부인가 국방위원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구인가?

둘째, 군수공업은 다른기업에 비해 原資材, 에너지, 資金 供給에 있어서 最優先權을 가지는가? 다시 말해 군수공업에 필요한 물자부터 확보하고 난 다음 남는 물자가 있을 때 民間 製品 生産 部門으로 공급하는가?

셋째, 북한 경제는 군수공업생산을 極大化하는 體制라고 볼 수 있는가? 또는 經濟 成長을 極大化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는가?

넷째, 북한의 군수공업은 民需品도 생산하는가? 만일 생산하지 않는다면 民需品 생산으로 손쉽게 轉換될 수 있는가?

다섯째, 북한 군수공업의 施設, 技術 水準은 어떤 狀態인가? 또 구동동이 제공한 군수 산업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섯째, 北韓 蘇聯間 輸出入의 대부분은 軍事裝備 생산을 위한 機械施設, 部品, 原料 등 인가? 예로서 북한이 電鐵 生産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구입한 部品, 原料 등은 무엇인가?

일곱째, 1985년 이후 소련의 對北韓 군수지원은 增加되었는가? 減

少되었는가?

여덟째, 북한은 또 한번의 南侵準備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北侵이 두려워서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홉째, 북한의 經濟計劃技法은 무엇인가? Input-Output 기법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법인가?

열번째, 북한 軍隊의 訓練 程度와 士氣 狀態는 어떠한가?

열한번째, 북한이 中 蘇와의 交易을 硬貨로 決裁할 때 북한 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 회(질문): 이러한 질문 외에도 토론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토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질문했다. 그러면 사회자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199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北韓政府 樹立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마이너스 성장의 傾向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둘째, 북한에는 私經濟나 地下經濟가 거의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부문이 존재한다고 한다.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과거 5년전에 비해 북한 人民의 生活水準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넷째, 東歐圈과 北韓의 生活水準을 比較해 주시기 바란다.

Scheibe (답변): 오늘 발표자료에 대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린다. 본인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Schuffner씨의 도움을 받겠다.

황의각 교수의 첫째 질문인 북한의 제2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중 GNP 성장률이 2~3%였던 주요 經濟的 要因에 대해 답변하겠다. 우선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GNP와 일반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 총생산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2~3%의 낮은 經濟成

長率의 첫째 理由는 北韓의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緣由된다. 둘째는 對外貿易이 遮斷되었다는 데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셋째는 外國 借款 導入의 어려움에 기인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2차 7개년 경제계획과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사이에 2년의 緩衝期가 있었다.

두번째 질문인 輸送手段, 社會 間接 資本 施設에 대해 간단히 답변 하겠다. 北韓의 社會간접시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4만 5천명의 인구를 가진 안주와 정주시에 가기 위해서는 非鋪裝 道路를 지나야 한다. 道路面에 문제가 생기면 婦人들이 道路補修 工事에 나간다. 원산과 남포 사이의 고속도로 사정도 아주 열악하다. 질문 중 도로망의 落後自體가 지역간 住民들의 接觸이나 情報 流通을 抑制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은 公害問題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 公害산업에 대한 投資는 優先順位에서 밀려있다. 직접 가 보진 않았으나 두만강의 公害상태가 심각하다고 들었고 순천 비날론 工場邊의 강물 汚染이 심하다고 알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오염문제를 解決할 能力이 없다고 판단된다.

北韓의 農業機械化率에 關해서 大답하겠다. 최근 韓國에 와서 本 耕耘機나 기타 農機械를 北韓에서는 보지 못했다. 농업에 대한 자료는 본인의 체험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농업의 주요 輸送手段은 소이며 자동차와 같은 수송수단의 주요 동력은 木炭가스이다. 이러한 手動으로 하는 作業은 80%에 달한다. 北韓의 경제상황은 수년간 악화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본인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 모든 계획은 非現實的의었고 技術水準도 計劃에 適合치 못했다.

김영규 조사관이 지적한 石炭埋藏量 220 내지 240억톤은 잘못 引用된 것으로 실재는 50억톤이다. 그러나 발표문에 실린 모든 정보는 北韓의 여러 部署, 官廳에서 본인과 北韓 사람들이 직접 集計하여 얻었다. 예를 들면 순천 비날론 공장 건설 투자액이나 서해담 건설비도 그렇게 얻은 수치이다.

1989년 금 수출량은 27톤이다. 소 100만 두, 돼지 300만 두에 관한 정보는 FAO에서 수집하였다. 2개 정유공장의 총용량 300만톤은 본인의 견해로는 정확하다.

이달희 박사가 질문하신 3년 동안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아주 악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農産物 收穫量의 減少와 病院이나 醫療施設의 制限, 또한 住民 個人의 自由를 制限한 데에 起因한다.

日本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日本과 수교의 대가로 戰爭 前 賠償金 50억 불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의 과거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일본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중국이나 소련에 비해 相對的으로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軍事問題에 대하여 답하겠다. 군사나 군대문제는 공부한 바가 없어서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一般的 水準에서 常識的으로 답변하겠다. 북한의 제 2 경제위원회, 다시 말해 군수분야의 생산은 최근에 마이크로 電子工業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 2 경제위원회는 다른 분야에 대해 優先權이 있다.

북한경제가 군수생산을 극대화하는 체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군수공업이 누구의 指示를 받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공업을 管掌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責任者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 소련과의 군사협력 比率問題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북한의 군수공업 시설 기술수준은 본인이 직접 體得하지 못했다.

사 회 : 오관치 박사께서 2, 3가지 질문하시기 바란다.

오 관 치 박사(질문) : 첫째, 對中, 蘇 交易을 硬貨決裁로 할 때 북한경제가 당면하게 될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 계획경제 運營 技法은 무엇인가? 舊 東獨이 북한에게 傳授한 것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Scheibe(답변) : 硬貨決裁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의 決裁條件은 원래 스위스 프랑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 商品去來였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로 善處를 해왔다. 소련은 북한에 대해 債務償還을 요구하였다. 1989년 對北韓 소련 무역수지는 5억불 黑字를 낳았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 구동독은 북한 경제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고, 북한은 스스로의 계획경제 실행기법을 갖고 있다. 경제계획의 指標는 該當部處에 미리 下達되며 하달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實行段階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처의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사 회 : 다음은 송도균부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균 부장(질문) : 첫째, 북한 주민은 金日成 生日과 같은 특별한 날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2천만이 넘는 북한 사람이 동시에 고기를 먹는다면 대단히 尙大한 屠畜施設이 있는지 貯藏施設이 좋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한 날의 북한 주민의 표정은 어떠하며 外交官도 이런 날 肉類를 配給받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남한 사람들은 T.V. 보도를 통해 북한의 平壤에 대해 익숙하다. 그러나 농촌의 사정 예컨대, 營養 狀態, 保健, 衛生 事情은 어떤지 궁금하다.

Scheibe(답변) : 典型的인 言論人 다운 질문이다. 식탁에 2천만이 동시에 앉아 있다는 表現은 재미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동시에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公休日이나 金日成의 生日등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間隔을 두고 配分된다. 고기 배급받은 주민들과 같이 식사한 적이 없어서 表情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外交官에게는 배급의 惠澤이 없다.

本人은 運 좋게도 북한 주민과의 接觸이 많은 편이었으나 그것은

전부 公的인 接觸이었다. 북한 주민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북한 주민들은 公式 訪問團이나, 使節團의 訪問을 통해 公的으로 외국인을 접촉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은 혼자서 農村과 都市를 旅行할 機會가 있었는데 도시와 농촌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公共施設이나 醫療施設, 文化施設 등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사 회 : 황의각 교수께서 2, 3가지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

황 의 각 교수(질문) : 첫째, 韓國의 北方政策이 急進展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主體思想의 슬로건 固守와 經濟的 實利追求라는 딜레마에서 脫皮할 수 있게 하는 契機가 되어준 것은 아닌가? 북한의 對日 對美關係를 전망할 때 對美 修交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북한의 留學生이 미국에 破綻될 가능성 없지 않다. 이러한 가능성은 金日成과 金正日의 性格差異에서 起因한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金正日是 open mind된 西歐 指向的 性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북한경제에서 食糧供給 問題보다 電力 問題가 더 深刻하다고 본다. 70年代初 超過 供給되던 電力이 그후 부족하게 된 것은 결국 工業의 擴大와 電力消費의 急增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확대되고 所得도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電力이 産業과 消費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력부족은 原子力 發電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셋째, 북한의 絶對 耕地面積은 한국에 비해 논이 적지만 干拓地 開墾에 의해 받은 땅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산업화로 農地가 道路나 工場敷地로 相當 面積이 吸收된 반면 북한의 농지는 擴大되었다. 또한 북한의 人口가 한국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경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북한이 아무리 농업시설이 落後되어 있다고 해도 최근 북한의 식량공급의 惡

化는 農業基盤이 弱해서라기 보다 自然災害에 따른 사정인 것 같다. 나는 이런 점을 國家安全企劃部와 깊이 있게 論議했고 그들도 同意했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는 입장은 변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Scheibe(답변) : 현재 南北 關係는 경제관계에서 好轉되고 있다. 舊 東獨이 西方世界에 門戶開放을 실시한 것은 공업화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 반면 북한은 계속 閉鎖政策을 維持하리라 본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門戶開放 外에는 없다.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 電氣에너지는 1970년 이래로 증가되지 않았다. 북한은 전기에너지 사용 산업분야, 즉 化學工業, 金屬工業, 시멘트 工業 등을 확장하려고 노력해 왔다. 순천화학공장은 製品을 生産할 때 코오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酸素生産에는 많은 電氣가 필요한데 전기에너지가 부족해서 相對的으로 生産量이 증가하지 않았다.

耕地面積에 대해 설명하겠다. 干拓地 開墾으로 경지면적은 증가되었다. 경지면적과 생산량에 있어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가 원활히 유지된다면 왜 남한으로 부터 쌀을 수입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점을 질문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식량문제는 농업에서 기계화를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사 회 : 다음으로 김영규 조사관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

김 영 규 조사관(질문) : 북한 경제의 劣惡한 事情은 정치체제가 안고있는 矛盾과 限界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그 모순을 알고 있다고 보인다. 소련이나 동구가 체제를 改革하고 開放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軍事政治的인 것인지, 純粹하게 經濟的인 것인지? 또한 현 북한 경제가 이러한 상태로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Scheibe(답변) : 北韓 指導者와의 접촉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존재와 상관없이 북한 체제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회 : 生活水準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하겠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경제문제와 정치 체제문제를 聯關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政策決定者들은 이러한 북한경제 사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만일 느끼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반대로 深刻하게 느끼고 있다면 豫想되는 對外 政策 變化는 무엇인가? 또한 국민들은 消費財와 食生活 物資 不足 現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기 바란다.

Scheibe(답변) : 본인은 북한 지도자의 생각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諸般問題들을 잘 알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飢餓에 허덕이는가는 身體的 特徵을 보면 잘 알 수 있으며 그 외 生活의 여러 측면을 보아도 영양상태를 알 수 있다. 여러 활동에서 最上의 힘을 못내면 영양상태의 不均衡을 意味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본인이 두 번 북한을 방문한 경험에 따르면 북한의 생활 수준은 中國보다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된다. MBC나 그외 T.V.에서 방영되는 북한 주민들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여위고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북한 外換 商店을 들렀을 때 外貨를 갖고도 아주 나쁜 과일밖에 구입할 수 없었다.

사 회 : 이상으로 토론자들의 질문을 마치고 마이크를 傍聽客에게 돌려 질문을 받기로 하겠다.

방청객(질문) : 첫째, IPU 평양 總會參席次 韓國 國會議員들이 북한에 다녀와서 북한 生活 實相을 보고했을 때 夫婦의 月收入이 400원

이라고 했다. 북한은 쌀을 7전에 구입하는 등 모든 생활비용이 低廉하여 이 정도의 月給이면 충분히 생활을 營爲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지 않는가? 남는 돈은 어디다 쓰는지? 結婚 必需品인 재봉틀이나 T.V. 購入같은 것도 300원, 500원 정도인데, 부부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답해 주기 바란다.

둘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평양에서 채소가게가 있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채소가게를 組合에서 提供한다고 논문은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가게가 官이 運營하는 가게인가, 個人이 所有하는 가게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란다.

셋째, 선생께서는 동독이 서독에 吸收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에서 일하다가 남한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獨逸이 統一되는 狀況을 염두에 두시면서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政策과 姿勢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참고로 말씀을 해주기 바란다.

Scheibe(답변) : 간단하게 대답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한 家口當 400원의 월 소득을 올린다고 할 때 家長이 鑛産業에 從事한다면 婦人은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그만한 월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조금 전 질문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은 現金이 많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현금을 가지고 재봉틀이나 其他 生活品을 구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은 許可가 必要하다. 私經濟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어떻게 개방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본인이 여기서 대답하기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현식 선생(질문) :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발표에서 북한은 매년 이란으로부터 100만톤의 石油를 받고 있으며 이 대부분을 再輸

出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原油가 不足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데도 再輸出하는 事實與否와 그 理由를 설명해 주시오.

Scheibe(답변) : 國際 報道에 의하면 1989년 이란이 북한에 보내준 石油의 양은 100만톤이 아니라 200만톤이었다고 한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어떠한 經路로 어느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중국으로 一定量이 수출된 것은 확실하다. 재수출하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근거가 되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대규모의 석유를 精製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방청객(질문) : 현재 한국은 資本主義 體制이고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 體制이다. 북한은 社會主義 體制이며 政治文化的으로는 封建的인 體制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북한은 다른 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統一方式은 獨逸의 國家統合方式과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南北의 統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방식과 정치문화통합방식 중 어떤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사 회 : 질문 내용에서 정치적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보다는 經濟統合 可能性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Schuffner씨께서 대신 대답하겠다.

Schuffner 韓·獨商工會 事務總長(답변) : 東方政策에 의한 過去 동독과 서독과의 관계에 미루어 볼 때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 親戚의 交換이나 또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하는 經濟交流政策과 한국의 北方政策이 계속 推進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中長期的으로 대개 4~5년간의 經濟的 交流가 擴張되면 追後에 政治적으로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사 회 : 장시간 좋은 논문을 Scheibe씨가 발표를 해주셨고 토론 참가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오늘 오후의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한 가지 結論을 내린다면 지금의 북한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존 로빈슨이 북한 경제와 관련하여 6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모델이 사회주의의 어떠한 경제모델보다도 가장 좋다고 評價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후 25년이 지난 북한의 경제를 보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經濟力 그 자체가 현재의 어떤 한 특정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長期的인 어떤 下降局面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오늘 토론에서 생활수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Scheibe씨의 발표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생활수준에 있어서 적어도 2~3년 전 보다 量的으로 消費水準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북한 체제의 변화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는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경제의 심각함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傾聽해 주신 來賓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發表者 및 專門家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附錄〉 세미나 日程

北韓問題 學術 세미나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實相과 展望—

日 時：1991년 6월 28일(금) 14:00~19:00

場 所：타워호텔(본관 1층 Rex Room)

- 13:30~14:00 登 錄
- 14:00~14:10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10~15:30 主 題 發 表
 - 司 會：李達熙(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發 表：Siegfried Scheibe(韓·獨商工會 技術顧問)
 - 題 目：“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實相과 展望”
- 15:30~15:45 Coffee Break
- 15:45~18:00 討 論
 - 討 論 者
 - 金永圭(統一院 調查研究室 第4研究官)
 - 宋道均(文化放送 解說委員 兼 北韓部長)
 - 吳寬治(國防研究院 軍備統制연구센터 所長)
 - 黃義珏(高麗大 經濟學科 教授)
- 18:00~19:30 리셉션(타워호텔 Zelkova Hall)